

CKT 그룹 양필승 회장 세계지식포럼 세션 좌장으로 초청



양 필승

TK Net 대표 CKT 그룹 회장

양필승 박사는 역사학자이며 사업가이다. 경기고등학교, 고려대학교 중문과를 졸업한 후, 1988년 UCLA에서 중국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 즉시 귀국해 건국대학의 교수로 임용되어 건국대 후학을 양성하기 시작했다. 1990년 말 직접 기업을 창업해 현재는 중국과 한국에 다수의 기업을 두고 있는 지주회사인 CKT 그룹의 회장으로 일하고 있다. 2002년 한국 화교들을 위해 영주권 제도를 만들고, 2016년 중국 태자당 등 유력인사들과 함께 중국 위안부기금을 만들기도 했다. 2006년부터 주로 중국 내에서의 코리아타운 개발사업과 교육 활동이 중국 등 해외에 집중했다. 이와 함께 한류의 중국 전파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뷰티사업분야에서도 활발하게 대중국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중국 칭화대학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직접 중국 직업학교에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2016년 법률관련 SNS 사이트(www.lawcom.org)를 운영하는 로컴주식회사를 설립했다. 또한 2017년 대한민국 제 19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당 후보 경선에 참여했다.

세션

인공지능의 꽃, 안면인식-중국 최대 AI 유니콘 센스타임의 혁신

빅 테크 빅 웨이브: 기술 르네상스 - 인공지능의 꽃, 안면인식-중국 최대 AI

유니콘 센스타임의 혁신

시간/장소	11 일 13:30 ~ 14:30, 장충
내용	센스타임(상탕커지)은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유니콘 기업으로, 컴퓨터 비전과 딥 러닝 기술이 스마트폰, 모바일 인터넷, 자동차, 회계, 유통, 로봇공학 등 수많은 업계에서 쓰이고 있다. 센스타임의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MIT, 홍콩중문대, 쉐컵, 엔비디아(NVIDIA), 혼다, 알리바바, 수닝(Suning), 웨이보, 아이플라이텍(iFLYTEK)을 비롯한 700여 개 기업이 센스타임의 안면인식 기능을 도입했으며, 10억 달러의 자본금을 유치했다. 이에 따라 기업가치가 45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센스타임은 세계 혁신의 핵심 동력인 딥 러닝 개발 분야에서 기반을 다진 최초의 아시아 회사이다. 센스타임의 최적화된 딥 러닝 플랫폼이다. 딥 러닝 알고리즘 모델 형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센스타임의 마이클 장 센스타임 총재는 이번 세션에서 센스타임이 개척해온 인공지능과 안면인식 기술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연사	장 원 (센스타임, 총재)
좌장	양 필승 (TK Net 대표 CKT 그룹, 회장)

출처:

MK 그룹. World Knowledge Forum.

<http://www.wkforum.org/WKF/2018/kor/html/speakerintroduce/popup.php?spuid=3223>